강진 '초식동물 해피랜드' 내년 완공

작천면 옛 축산연구소 자리에 21억 투입

관찰 학습장·주차장 등 설치공사 본격화

강진군 작천면에 조성 중인 '초식동물 해피랜드'가 내년 말께 선보인다.

'초식동물 해피랜드'는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터에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전남도와 강진군이 추진하는 체험형 축산테마공원 조성사업이다.

군은 22일 "현재 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공모와 주차장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사업은 축산연구소 주관으로 설계업체가 선정한 후 올 연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방목형 동물놀이터, 수변동·식물 관찰 학습공간, 동물관리사 등을 배치해 동물 먹이주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정크아트, 토피어리, 건초단을 활용한 예술작품 등을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축산업 이해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현재 전체 사업비 가운데 18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주차장 설치공사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초식동물 해피랜드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부터 전남도에 건의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 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2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축산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해 단계별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며 "강진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소외 이웃의 아픔 함께 합니다"

담양 승일식당 박경우·김갑례 부부 500만원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맞아 담양군에 성금과 성품 기탁 행렬이 줄을 이었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승일식당 박경우·김갑례 부부가 저소득가정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사진〉,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백 대표가 컵라면 100상자(600개)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가 조손가정 12세대에 전달해달라며 온누리상품권 60만원을 전달했다.

박경우·김갑례 부부는 담양 돼지갈비 맛 집으로 알려진 승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담양군 착한가게로 지정된 뒤 급식경로당 2개소를 2009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고 대표 역시 지난 6월 이마트 에브리데이 개점기념으로 쌀 10kg 50포를 기탁한 바 있으며, 한국도공 전남본부도 매달 직원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해 조손가정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독거 어르신 구한 '응급안전 돌보미'

나주서 80대 노인 급체…119 구조대 긴급출동

나주시가 독거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구축한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U-Care)'이 한 80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세지면에 사는 이모(여·81)씨가 급체로 인해 호흡이 가쁘고 머리가 어지러워지자 집에 설치된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벨을 눌렀다.

응급신호를 감지한 나주소방서는 119구조대원을 긴급 출동시켜 할머니를 40분 만에 나주병원으로 긴급 이송, 응급조치를 취한 뒤 전대병원 응급실로 옮겨 무사히 생명을 구했다.

이날 할머니의 목숨을 살린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IT)과 무선 네트워크 기반기술(RFID/USN)을 이용해 365일 독거노인들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할머니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지금도 무섭다"고 울먹이면서 "멀리 사는 내 자식보다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이 더 낫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시는 최근 지역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U-Care시스템과 센터설치를 완료하고 365일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상시 확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각종 사고와 질병, 화재, 가스누출 등에 의한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경우 24시간 활동 움직임이 없거나, 화재 발생과 가스누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가 출동해 구조해 주는 센서를 부착했는데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가면무도회 가요"

최근 강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한 '다(多)문화 good' 모국문화교실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필리핀 부스에서 축제 때 사용하는 가면을 써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등 4개국 8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준비해 마련했다. 〈강진군 제공〉

영암국유림관리소 "사유림 삽니다"

산림청, 국유림률 확대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가 사유림 매수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2일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26억원을 들여 420ha의 사유림을 산 데 이어 지속적으로 매수사업을 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다. 산림청은 현재 24.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려 전국에 국유림이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매도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20~4)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장성 덕성행복마을 일원 그린벨트 해제

장성군이 추진 중인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2일 "덕성행복마을 부지인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덕성행복마을에는 2017년까지 625억여원이 투입돼 54만375㎡ 면적에 한옥, 공동주택,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900세대에 3500여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또 군은 국도 1호선과 나노산단이 가까워 교통 등 입주 여건이 뛰어난 만큼 건축, 토목, 경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고의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마을을 조성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정읍 '샘고을시장' 교과서 등재

100년 전통…대장간 등 고교 과정에 소개

100년 역사를 간직한 정읍지역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이 고교 교과서에 실린다.

정읍시는 22일 "샘고을시장이 지학사에서 펴내는 고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다"고 밝혔다.

지학사는 교과서 177쪽에 시장 풍경을 담은 사진, 소갯글과 함께 샘고을시장을 '100년 전통의 정읍 샘고을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처리한다. 전체 1페이지 분량으로 샘고을시장의 대장간, 튀밥 파는 아저씨, 방앗간을 찾은 할머니 등을 정겹게 소개한다.

샘고을시장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 옥천 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모두 4개가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교과서에 담긴다. 정읍시내 시기동 2만1458㎡ 부지에 자리 잡은 샘고을시장은 1914년 시장으로 등록돼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다.

애초 5일장으로 운영됐으나 1978년 현대화사업을 거치면서 현재의 시장 형태를 갖추고 상설화했다. 교통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인근의 순창과 고창, 부안 주민까지 이용하는 전북 서남권의 중심 시장으로 성장했다.

현재 356개 점포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건어물, 옷, 잡화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다. 시는 개장 100주년을 앞두고 '샘고을시장 100년 희망사업단'을 만들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샘고을시장은 전국 1500개가 넘은 전통시장에서도 대표성을 인정받을 만큼 역사와 의미가 깊다"며 "품질과 서비스를 꾸준히 높여가고 시장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살려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우리 토종 술·된장 나온다

순창 장류사업소, 곰팡이 자원화 연구 '성과'

일본산 종균 쓰던 국내 장류·주류 발전 기대

순창군은 22일 "장류사업소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황국균(Aspegillus oryzae), 홍국균(Monascus ruber), 금화균(Eurotium sp.)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장류·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대부분 일본산 종균으로 전통식품의 정체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형 토종 미생물의 자원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순창군에서 분리한 황국균 등은 전통식품의 정체성 회복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국균은 일반적으로 메주를 발효하는 과정 중에 착색되는 곰팡이로 고초균과 더불어 전통장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혈행개선 효과와 산업화에 문제가 되는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지 않아 앞으로 장류제품 개발에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홍국균은 인체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 억제 효과로 식품·제약 산업에서 활용 연구가 이루어진 균이다. 금화균은 중국의 복전차·보이차 등에서 노란색의 좁쌀형태나 모래알처럼 분포돼 마치 노란색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여 이 균으로 만든 차를 금화차라 부른다.

중국에서는 금화균이 핀 차가 고가에 판매되는 등 고부가가치 차로 알려져 있다.

순창군 장류사업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순창지역에서 생산된 메주·장류제품에서 다양한 곰팡이 등 67종을 분리했으며 이중 유전자 분석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수한 황국균, 홍국균, 금화균을 찾아냈다.

장류사업소 정도연 담당은 "이번 분리된 균을 활용해 심혈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미생물 자원화 연구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발효 종주 도시인 순창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토종곰팡이인 '황국균' 등을 발견한 순창군 장류사업소 김형영 박사.

부안 위도 상왕등도항, 항만 개발 착수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부안의 위도 상왕등도항에 대해 체계적인 항만개발이 본격화된다.

부안군은 22일 "해양수산부가 상왕등도항 현지 방문과 실사 등을 실시했으며 이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격포항에서 서북방향 45㎞ 떨어진 위도면 상왕등리에 위치한 상왕등도항은 현재 항내수면적이 43만2000㎡, 항내수심이 15m에 달하며 1~10t 미만 어선 15척의 접안이 가능하다.

또 서해중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 있는 영해기점 도서로서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상 중요지점에 위치해 있다.

해수부는 상왕등도항을 국가안보와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위한 항만으로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해양 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 가운데 방파제와 호안 등 외곽시설을 비롯해 선착장과 부두 등 접안시설 및 친수시설에 대한 내용이 기본사업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연극으로 언제나 청춘"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인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가 올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무대지기는 지난 13일 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시작으로 '실버! 연극에 색을 입히다'를 주제로 10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정읍시 '안전총괄 담당' 신설

정읍시는 22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맡을 '안전총괄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안전총괄 담당은 기존 재난안전관리과의 새로운 명칭인 안전총괄과 산하에 설치한다.

정읍시는 이런 방침에 따라 녹색도시국의 이름도 안전녹색도시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논의를 거쳐 내달 시행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무정전 전원장치' 교차로 시범 설치

전주시는 21일 "정전에 대비, 비상전력체계인 '무정전 전원장치'를 주요 교차로에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지역은 종합경기장, 통일광장, 진북터널, 효자광장 교차로 등 4곳이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갑작스러운 전압변화나 정전, 주파수 변동에 대비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뜻하며 병원 수술실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정전 등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신호운영이 중단,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 무정전 전원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군산·부안 해저 인공어초 설치

군산과 부안 해저에 인공어초가 설치된다.

전북도는 22일 "올해 31억을 들여 진행중인 인공어초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돼 10~11월에 군산과 부안 해역에 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이 구조물을 군산과 부안 20여곳의 해저에 투하할 방침이다.

인공어초는 해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 인위적으로 유용 수산생물의 자원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치 시기와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약 2.7배의 어획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고창군, 고수부지 산책로 LED 바닥·벽부등 설치

고창군은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마련된 고수부지 산책로에 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LED) 바닥등과 벽부등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조명은 태양빛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치로 상시 전원 없이 일출과 일몰을 자동으로 인식,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전기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바닥등은 주변 친수공간과 조화를 이뤄 여름밤의 운치를 더해주며 야간 경관조명 효과까지 뛰어나 군민의 산책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